



불교 이래서 좋다

정인택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스스로 정진하고 깨닫게 해

학창시절 몇몇 종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종교는 어딘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졌다. 입교를 강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다시피 따라가 설교를 들었지만 오히려 반감만 생겼다.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다. 나와 친구들은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동원돼 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 그날 나무 몇 그루가 남자 나와 친구들은 각자 필요한 곳에 심기로 했다. 한참 심을 곳을 물색하다 우리는 짙 근처에 나무를 심고 그 절을 참배했다. 그 후 나는 친구를 따라 그 절 학생회에 가입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친구는 이미 그 시절 불교 학생회에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곳을 나무 심을 장소로 선택했던 것이다.

법회에 처음 참석하여 법문을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삼법인에 대해 말씀하셨다. 스님의

법문은 가슴에 막혔던 무언가를 확 뚫어 버린 듯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맞다. 그렇구나!"를 마음 속으로 연발하게 되었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나를 받쳐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무언가 모르는 힘이 매료된 듯 더욱 열심히 다가갈 수 있었다.

불교는 현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와 자연, 이웃이 하나를 이루고 나 자신이 열심히 해야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어떤 일도 내 의지와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런 사실을 청정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불교가 너무도 좋다. 남에 의지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꿈이 타인의 조정을 받아 좌절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그래서 스스로 정진하여 성불하는 불교가 좋다.

나는 앞으로 보리의 마음 내어 불우 이웃을 돕고, 특히 어린 불우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

누굴 돕는 것보다 큰 행복 있나요

인도서 자원봉사 후 귀국한 정토회 대학생부



정토회 대학생부 학생들이 인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주민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반성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많이 누림으로 인

해서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해보기도 했습니다." 1월 7일부터 12일까지,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인도에서 두차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온 정토회 대학생부 10명이 귀국했다. 좀 더 나은 취직자리를 위해 영어권 나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대학생부는 1차 봉사활동에선 1월 12일에

경야독'의 생활을 했다. 또 '사냥터'를 주제로 명상수련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각자 그날 느낀 것을 편안하게 털어놓는 '마음 나누기'도 했다.

이준길(23, 서울고대 국어교육과 3학년)씨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다 인 줄 알았는데,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길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굴 돕는 것보다 큰 행복이 있을까란 생각도 해 봤다"고 털어놓았다.

처음 인도를 방문한 1학년 학생 4명은 연료로 쓰이는 쇠뿔을 보고 집결을 하기도 했고, 물을 갈아마셔 설사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100년 만에 들

의료활동 기술학교 개원준비 등 구슬땀

열린 '수자타 기술학교' 개원식 실무 준비 활동을 했다. 또 지난해 1월 10일 기술학교 공사를 진행하다 무장강도의 흉탄에 유명을 달리한 최성봉 교사 추모비 조성 공사에도 힘을 보탤다. 2차 봉사활동에선 인도 JTS에서 운영하는 지바가 병원 쓰레기 매립지 조성의 의약품 소각장 건립 공사를 했다. 이 외에도 수자타 인근 마을을 찾아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손톱을 깎아주며 상처를 소독해 주는 현지인 대상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역에서 동사한 사람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귀국하기 하루 전 봉사활동을 하며 사귀었던 인도 친구들이 자신도 기회가 닿으면 한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쓴 편지를 보고 보람을 느꼈다는 정토회 대학생부 학생들.

이상환 대학생부 간사는 "올 봄 학기부터 정토회 국제봉사단이 있는 서울대와 동아대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과 인도 아프리카니스탄을 돕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명동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삼전복지관

'학교 사회사업 서포터즈' 모집

체계적 자원봉사자 교육·양성
예비 복지사 되는 기회 제공



중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삼전복지관 자원봉사자들.

"학교 자원봉사 서포터즈 모여라!" 삼전종합복지관(관장 각우) 학교사업지원센터에서는 2003년 학교 내 자원봉사 등 사회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인 '학교 사회사업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기존의 단기적인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예비 사회복지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부

대학원생까지로 5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사람. 18일까지 접수신청서를 삼전복지관 학교사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20~23일 총 17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학교사회사업의 이해, 사례관리,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의 강의를 듣고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경남 지역 청소년 댄스팀을 대상으로 창작 퍼포먼스, 3:3 대항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다.

또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1일 오후 2시에 2월 무료 영화 상영회를 연다. 이번에 준비된 영화는 '트리플 X'. (051)868-0750

부산 용호복지관 독서감상문 공모

부산 용호종합복지관은 28일까지 독서감상문 공모대회인 '내가 독서왕!'을 실시한다. 참가자격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로 복지관이 선정된 2월의 서적 중 한 권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물운대복지관, 통합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부산 물운대복지관은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맑은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개별 언어치료는 주 2~3회, 그룹 언어치료는 주 5회 실시되고 사회적응 훈련 등도 함께 진행된다. (051)264-9003

양정수련관 15일 '양청페스티벌' 개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5일 오후 3시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제 6회 '양청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

2003 '세계 물의 해'

물의 급수와 지표 생물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인 973mm를 훨씬 웃도는 1274mm. 대부분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

1급수는 오염이 없는 물,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먹을 수 있다. 가재, 벼들치 등이 사는 물이 바로 1급수다. 2급수는 화학적 정화 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 물에는 다슬기와 쏘가리가 살 수 있다. 3급수는 정화를

과다 인구·수질오염, 부족현상 악화

효율적 수자원 관리 무엇보다 중요

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제한적이다. 더하여 과도한 인구와 1인당 물 소비량의 과다는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날로 악화되는 수질 오염은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더욱 줄여 놓는다. 수자원 관리에서 수질 관리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해도 먹을 수는 없는 물로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3급수에도 붕어나 메기는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붕어와 메기마저 사라진다면 이 물은 죽은 물이다. 단순히 사용할 수 없는 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토양 오염과 같은 2차적 오염을 부른다.

명작 비디오 파일

천공의 성 라퓨타

1986년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한 124분짜리 애니메이션. '미라클스 코난'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기행'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맡았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이 영화의 주요 모티브다.

신비한 '비행석'을 지닌 소녀 시타는 고도의 과학 문명을 지녔던 라퓨타 제국의 공주. 그녀는 라퓨타의 비밀을 푸는 주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비행석을 돌려주고 이를 빼앗아 세계를 정복하려는 무스카와 시타를 지켜주려는 친구 파츠, 라퓨



타의 엄청난 보물을 찾으려는 해적 일당들이 한바탕 승부를 겨룬다.

자연과 하나가 된 완벽한 인공섬이자 인간을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인 라퓨타의 실체는 '마음에 의해 온갖 존재를 만들고 마음에 의해 파괴(果)를 초래한다'는 부처님 말씀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마음 먹기에 따라 과학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적도 되는 것이다.

강유신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사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환주시는 분개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특히받은 명당육기방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氣란? 현실입니다.

<한차원 앞서가는 명당육기방>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는 명당육기방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으로 내려주신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방은 어느 곳에 두어도 天氣, 地氣, 六氣의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고 육방호법수호신장,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천하대장, 지하여장이 액운과 우환과 재앙등 악귀를 막아주고 업장을 소멸함으로 훈훈한 氣운이 감돌아 기분이 안정되는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명당육기방에는 정성과 혼이 담긴 만사형통 12가지의 부적이 세겨져 있고 관운과 재운과 명예운을 얻고 큰인물이 태어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발하는 발원문, 소원성취문, 사업성취문, 조상발원문, 학업성취 소원문, 부적 등을 넣어 가정에 두고 정성드린 마음을 가지면 영험적 좋은 운으로 바꾸어 주고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있게되며 명당육기방을 가진 인연공덕으로 근심걱정 사라지고 행운과 소원을 이룰것입니다.



신비의 황금 보물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가정집, 점포, 사무실, 집터, 공장터, 묘지터에 氣가 약하면 근심과 불화로 변해가고 氣를 모아주면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갑니다. 불화가 오고 안될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1. 모든 일들이 불행으로 변해가시는 분
2. 사업이나 장사가 잘안되시는 분
3.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있으신 분
5. 아라는 데로 다해보아도 안되시는 분
6. 큰꿈을 품고 알려고 하시는 분

좋은 氣운을 모아주면 명당이 됩니다.

명당육기방은 가정, 점포, 사무실, 공장등에 氣를 모아주고 수호하여 액운을 막아주고 재물이 모이는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氣가없고 수호없는 자리는 액운과 불화가 따르고 재산상 손실이 오고 잘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배(선박)에는 예고없는 대형사고나 재난이 날 수 있으므로 총명한 氣운과 지켜주는 氣운이 융합 안전운행이 되도록 합니다. 명당육기방은 집터, 공장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액운과 풍파가 없는 명당터를 만들어 줍니다. 터에 氣가없고 액운이 가로막고 악터가 되면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묘지, 납골묘지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악귀 없는 명당터로 만들어 줍니다. 氣가 약하고 잡귀와 수백과 자기 결핍증에 시달린 영기들이 힘들고 괴롭고 편안하지 못하면 직계가족 또는 후손에게 악성적 좋지않은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氣가 모인 명당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불러오고 氣가 약하면 악터가 되어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고 잘되는 일이 없으며 불화가 따릅니다. 옛부터 조상이 도와야 잘된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명당육기방 : 051-865-9933 홈페이지주소 : 명당육기방 www.6kibang.co.kr

불행과 행복은 氣의 원리하에 좌우하고 氣가 약하면 불행이 올 수 있으며 氣가 강하면 부귀로 변해갑니다.

종류: [골드 1호, 2호 : 가정집, 점포(상가), 사무실 전용] [홍, 은, 흑 : 묘지, 집터, 공장터, 상가터 전용] [1호 : 모든 자동차, 배(선박) 전용]